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로

김누리 빅보스컴퍼니 팀원



탄핵 정국을 거치며 시민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너그러운 민주시민 의식을 갖았으리라 생각한다. 문제의 본질은 서로 이해해주는 태도를 지니는 데에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아집만 주장하기보다 타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따뜻한 민주주의가 실현됐으면 한다. 이번을 계기로 지역에서도 민주주의의 진의가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세상을

박용수 광주시청 인권평화국장



탄핵이 인용되면서 기존보다 진일보된 'K-민주주의'의 미래를 꿈꾸게 된다. 앞으로 지역과 세대, 성별 등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는 정부가 들어서길 간절히 바란다.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전쟁 위험이 없는 세상, 남북 화해와 협력, 교류를 증진하는 세상이 도래하길 고대한다.

혐오와 차별 아닌 포용의 사회

범은경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파면'이라는 재판관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은 반민주세력을 이겨냈다는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으로는 혐오와 차별 등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포용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새 정부는 기초 학문과 책 읽는 문화에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하는 힘'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청년이 더 나은 삶 사는 나라

최장우 광주시고등학교학생회 의장



기나간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집단적 대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쳤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료하고 보듬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청년들부터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오길 기대한다.

이제 국민이 나라 걱정 않게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돌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섰으면 한다. 폭압의 정치 속에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불안에 떨어 왔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내일 걱정 없이 폭 잘 수 있으면, 누구나 소소하지만 작은 꿈을 품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국힘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넘어 우세

한길리서치 4~5일 조사, "尹 파면 잘 된 결정" 64.4%

리서치뷰 4일 조사, 이재명 48.7%·김문수 20.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누구와 양자대결을 벌여도 과반으로 우세를 점한다는 결과가 6일 나왔다. 또한, 국민 과반 이상이 이번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잘 된 결정이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와 MBN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공동 의뢰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인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양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결에서는 이 대표 50.3%, 한 전 대표 18.2%로 집계됐다. 홍 시장과의 가상 맞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0.9%, 홍 시장 26%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64.4%가 '잘 된 결정'이라고 답했고, 32.1%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잘 모른다'는 3.5%였다. 특히 지지 정당에 없는 무당층에서 70.1%가 파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3.7%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직후 전국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다자대결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반에 가까운 48.7%를 얻어 20.8%에 그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 배 이상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이낙연 전 총리 4.7%, 이준석 의원 4.2% 등이었고, 응답 유효층이 21.7%에 달했다. 헌법 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는 52.2%가 수용한다고 답했고, 44.8%는 '불수용'이라고 답했다. 잘 모른다는 3%였다.

한편, 한길리서치 조사방식은 무선 전화면접 15.6%, 우선 전화면접 3.9%, 무선 ARS 80.5% 등 혼합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5%다.

리서치뷰 조사방식은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3.8%,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9일 대표직 사퇴 후 대선 행보

여야 잠룡들 대선 행보 시작
김영록 지사 호남주자 준비
국힘도 본격 대선 체제 전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여·야 주요 주자들의 본격 대선행보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9일께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의 지도부 체계와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야권 정치 지형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주요 주자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 체제로 조기대선을 치른 뒤 9일께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꾸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일 이재명 대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조만간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 이 대표가 바로 사퇴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앞서 7일 사퇴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일을 지지하는 것을 지켜보며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출마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으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앞세워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띄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비명계 중 김두관 전 의원은 당내에서

처음으로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와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김 지사 측이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호남 대권 주자로서 체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의 경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잠정적 민주당 대권 주자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용진 전 의원은 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공동 행보에도 나설 가능성도 감지되면서 범야권 후보 탄생 여부도 관련 포인 트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충격 속에서도 대선 체제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 운영 방향과 관련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며 자택 인근을 찾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출마를 가시화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경선 일정 윤곽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도 출마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LOTTE TOUR 1688-1104. 대한민국 대표 관광 여행. 하이엔드 HIGH& 54. 대한항공 오슬로 특별 직항 전세기 북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선착순 50만원 할인! 품격 북유럽 4개국 9일 8,390,000원부터. 정통 북유럽 4개국 9일 5,590,000원부터. 대한항공 조지아 특별 직항 전세기 코카서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선착순 50만원 할인! 품격 코카서스 3개국 9일 6,390,000원부터. 정통 코카서스 2개국 9일 3,390,000원부터.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1533-1234.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4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24년) 한국서비스대상 여행서비스 부문 종합대상 15회 수상 T7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21년 연속수상.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상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